

# 심 심 KNTA에 물어보세요

상담 김은배 서울지부 복식자의원장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약을 먹다가 중단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Q** 엄마인 제가 결핵에 걸려 7개월 된 아이가 접촉자검사를 받았습니다. 12월 중순부터 제가 약을 먹었고, 바로 아이가 검사했는데 12월에 음성판정 받았습니. 그래도 아이나 계속 먹고 있고요. 10주쯤 검사결과도 음성이 나와 약은 안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달 넘게 약을 먹다가 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내성에 생기는 게 아닐지... 두 번 다 음성이면 이제 검사를 안 해도 되나요? 몇 달 후에 또 해야 되는지요? 제가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두 번 다 음성이라는 게 안 믿겨져요. 차라리 9개월 동안 약 먹이는 게 맘이 더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9개월 먹으면 평생 안 걸린다는데 그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A** 아이가 처음에 결핵 피부반응검사 상 음성이었다더라도 엄마로부터 전염 가능성이 있어서 잠복결핵 감염이 의심된다면, 일단 예방적으로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약 8~10주 후 재검사상 계속 음성이라면 잠복결핵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약을 9개월간 계속 복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엄마께서 더 이상 배균되지 않고 결핵치료가 잘되고 있으면 굳이 추가로 더 검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결핵이 아니고 또한 복용기간이 길지 않았고 규칙적으로 복용했다면 추후 그 약에 대해서 약제내성이 생기게 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결핵 보균자와 접촉했을 시 결핵반응검사 방법 문의 드립니다.**

**Q** 42개월, 100일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3개월 전쯤에 아이들 큰아빠가 결핵으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큰엄마는 반응검사가 정상으로 나오고, 만 35세 이상이라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견이 나와서 약을 복용하지 않았 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 끝나고 큰엄마 역시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줄 모르고 설 연휴 이틀 동안 저희 가족과 큰집 식구들은 같이 생활을 했고요. 이런 경우 우리 아이들에게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이들도 어른처럼 흉부 엑스레이와 객담검사로 결핵진단이 가능한가요? 만일 결핵반응검사를 하려면 보균자와 접촉한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하나요? 결핵약의 경우 3개월가량 복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반응검사 없이 복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큰엄마께서 단순한 잠복결핵이 아닌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었다면 전염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 5세 이하 어린이들은 결핵 피부반응검사 및 흉부 X-선 검사 등을 하면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 검사 상 음성으로 나왔더라도 결핵 감염이 의심된다면 일단 예방적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3개월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장결핵으로 인한 복통인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Q** 최근에 복통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았다가 장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이 염증으로 인해 너무 많이 부어서 복통이 심한 거라고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하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동안 결핵약도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지나니 복통이 사라지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금식이 끝나고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복통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나마 화장실을 다녀오면 복통이 나아지기도 합니다. 결핵약 먹다보면 나아질까요? 복통 증상은 오른쪽 하복부에서 꾸룩꾸룩 소리와 함께 칼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나고 가스도 잡니다.

**A** 일반적으로 장결핵의 경우 결핵 약물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점차로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런데 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장폐색이나 병증이 심한 경우 등이 의심되므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서 필요시 추가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핵약으로 인한 이명 증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 결핵약으로 인한 이명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거나 사라지나요? 주사 맞은 지 1년도 넘었는데, 요즘엔 나머지 한쪽 귀마저 없던 이명증상이 생겼습니다. 초회내성이고 어린 유아가 있어 계속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치료 종결 4달 정도를 앞둔 시점에서 문의 드립니다. 치료가 잘 되고 있는 중이긴하나 어린 아이에게 전염 걱정 없이 같이 살 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A** 이명증상은 초기에 발견하여 주사약을 즉시 중단하면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증상이 소실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담당의사 및 이비인후과 의사의 진료를 따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핵치료가 잘되고 있고 특히 매일 시행하는 객담 결핵균 검사 상 계속 음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면 같이 지내도 무방할 것입니다. 문의자의 병의 상태에 관해서 담당의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치 판정 후 급작스레 나타나는 현상, 약 부작용인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Q** 폐결핵 완치판정 후 피부질환 이상증상이 3년째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9개월간 약 복용 후 바로 다음날부터 가려움증, 화끈거림, 많은 피지분비를 동반한 모낭염성 뽀루지가 턱밑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얼굴전체를 감쌀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올라와서 피부과를 찾았더니 여드름으로 판단하고 피지억제제만 조제해주고, 한의원에서는 약을 5개월 분량 처방해주어 복용했더니 피지는 많이 없어지는 대신 뽀루지는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저로서는 원인이 결핵약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약성분으로 인해 폐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약복용 중에는 피부색이 까맣게 변해갔어도 뽀루지 하나 나지 않고 결핵약 복용 전보다 오히려 피부결은 더 좋아졌었습니다.

**A** 일반적으로 결핵 약물을 복용하는 기간 중에는 가려움증이나 기타 피부 부작용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치료를 종결하고 나면 차차로 좋아져서 더 이상 피부 증상이 진행되지는 않게 됩니다. 상기 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결핵약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학병원 피부과에 가서서 정밀 검사를 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